

농업·농촌의 미래발전모델 연구*

윤 성 이**

A Study on Developing Model of Agriculture in Korea

Yoon, Sung-Yee

We need fundamental plan to develo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which has essential effect to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It should be avoided the structural problem that the farming corporations has gone through in present. Firstly, it needs to be systematized and constructed farming complex for the priority. The government initiate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business and expanded agriculture business as the part of the policy. There are some researches which have been studied the systemat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farming complex. It is suggested and mentioned various kinds of policies and directions so far. But, it is not mentioned any practical models. That means it seems to be various differences between each farming corporations in the structural cas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most optimized model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by analyzing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Natur' farming Corp and 'Sancheong-gun' expanded Environment-friendly farming complex.

Key words : *farming complex, systematizati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 서 론

한국 농촌과 농업이 점점 위기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언급된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농가구수의 감소와 함께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근래 들어 가끔씩 보이는 귀농현상은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가끔씩 농촌으로 오는 도시민조차도 농촌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농업은 점점 사양산업으로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의 연구지원제도에 따른 연구성과임.

** 대표저자,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전략하고 있고, 화학비료 및 농약을 과다 투입하는 관행농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친환경농업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농가부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대내적인 농업경영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맞물려 소작농이 대부분인 한국 농민의 살 길은 더욱 막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WTO, FTA까지 세계경제의 개방화의 속도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한국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은 친환경농업을 시작하였다. 한국의 친환경농업은 세계의 유기농업에 비했을 때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¹⁾, 농산물의 인증기준이 세계의 그것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작을 늦게 한 만큼, 한국도 선진국만큼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나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전형적인 영세소농구조에서 오는 규모화 문제, 고령화 문제, 농민들의 조직적인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단지화²⁾, 조직화가 최우선과제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사업과 영농규모화사업 등은 이에 기반한 실천과제로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지화, 조직화의 방법은 각각 차별성이 존재하고, 심지어 같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나투어영농조합법인(게비스랜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산청군)의 단지화, 조직화의 구조적 차이점을 분석하고 미래농업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한국 농업의 문제점과 미래농업의 구조적 구축 방안

1. 선행연구의 고찰

농업의 단지화, 조직화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다. 김정호 외(1997)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에서 농업법인제도와 정책의 추진상황을 서술하고 운영사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년도 경지면적(1,782,000ha) 대비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약 6.9%이고, 유기농산물 인증면적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0.55%이다. 유기농업 선진국들의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14.2%, 스위스 10.9%, 이탈리아 8.4% 등이다.

2) 본 연구에서 단지화란 일정지역의 개별농가들을 조직적으로 묶는 것으로 개별농가의 재배면적을 늘리는 규모화라는 용어와는 차별성이 있다.

례를 분석하여 외국의 농업법인과외의 차이를 통해 농업법인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김영생 외(2006)는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방안에서 농업법인경영체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제도혁신 방안을 연구하였다. 박문호 외(2000)는 농업법인경영의 발전 방향과 정책개선 방안연구에서 농업법인의 제도 및 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농업법인의 유형별 경영실태와 성과를 조명하고 있다. 또한 사례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농업법인의 발전방향과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황의식 외(2008)는 2008농업전망에 수록된 농업경영의 조직화란 보고서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조직화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일본의 마을 영농과 한국의 영농조합법인의 사례를 통해 농업경영 조직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농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지화, 조직화의 구조적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화, 조직화를 구축한 농업경영체의 사례를 토대로, 이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농촌·농업의 미래 발전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각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델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최적의 모델이 모든 제한사항을 물리치기는 힘들겠지만 현재의 상황보다 발전된 모델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2. 한국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점

1) 규모화 문제

한국은 전형적인 소농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경지규모 1ha 미만이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고, 경지규모가 3ha가 넘는 가구수는 전체의 7%에 불과하다.³⁾ 소농중심의 한국 농업은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도래하여 그 경쟁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화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규모화는 정부의 노력으로는 그 한계가 있고, 농가의 재배규모가 커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에 더 적합한 단지화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단지화는 규모화와 비추어 보았을 때 경지의 소유자만 다를 뿐 재배규모의 확대라는 면에서 일맥상 통하고, 뿐만 아니라 공동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화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지화에 대한 재배규모별 생산비, 소득과 관련해 나온 조사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러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방안은 단지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규모화의 내용으로 대체하였다. <표 1>과 <표 2>에

3) 통계청이 조사한 경지규모별 가구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농가구수는 1,231,009가구이고, 이 중 1ha 미만이 802,716가구, 3ha 이상이 85,875가구이다.

4) 본 연구에서 규모화란 개별농가의 재배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서 보면 논벼의 재배면적이 늘어날수록 생산비는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0.5ha 미만과 10ha 이상에서의 소득 대비 생산비를 살펴보면 0.5ha 미만일 때 1.37인데 비해 10ha 이상일 때는 1.04로서 재배규모가 커졌을 때 소득대비 생산비는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1>에서와 같이 재배규모가 늘어날수록 노동력 투입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0.5ha 미만과 10ha 이상에서의 소득(단위 : 만원) 대비 노동력 투입시간을 살펴보면 0.5ha 미만일 때 0.44인데 비해 10ha 이상에일 때는 0.24로써 재배규모가 커졌을 때 소득대비 노동력 투입시간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화를 하게 되면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서 농가의 소득 측면에서는 이득은 그 중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농가에서는 단지화를 통해 얻어지는 이득보다는 불리한 측면을 더욱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화 문제에서는 각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생산의 단지화와 규모화를 통해서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공동마케팅, 판촉 등을 통한 이득은 생산비의 절감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단지화를 통한 재배면적의 규모화는 꼭 실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표 1> 재배규모별 논벼 생산비 합계(10a 당)

(단위 : 원)

재배규모별	2004	2005	2006	2007
전국평균	587,748	587,895	600,120	607,354
0.5ha 미만	620,968	632,208	654,286	654,499
0.5~10ha	591,516	581,218	591,531	600,951
10.0ha 이상	539,545	564,414	544,858	592,180

통계청

<표 2> 재배규모별 논벼 소득분석(10a 당)

(단위 : 원)

재배규모별	2004	2005	2006	2007
전국평균	715,683	545,776	542,468	489,948
0.5ha 미만	694,371	526,236	528,656	477,147
0.5~10ha	714,699	544,339	534,360	483,476
10.0ha 이상	723,034	576,809	672,682	569,017

통계청

〈표 3〉 재배규모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10a 당)

(단위 : 시간)

재배규모별	2004	2005	2006	2007
전국평균	21.66	20.81	19.85	17.64
0.5ha 미만	23.81	23.70	24.85	21.18
0.5~10ha	21.06	19.77	18.45	16.49
10.0ha 이상	16.02	16.33	16.34	13.90

통계청

2) 고령화 및 청장년층의 이농현상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늘면서 인구의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그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2004년~2007년 한국의 농가구원수는 점점 줄고 있는데 반해 60세 이상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 2007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가구원 2.77명 중 60세 이상이 1.38명으로 가구원수의 약 50%에 해당한다. 게다가 전업농의 경우 2.44명중 60세 이상이 1.56명으로 가구원수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눈 여겨 볼 것은 20대, 30대의 비율이다. 20대, 30대는 농업의 핵심적 인물이자 영농후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농촌의 미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20, 30대)가 불과 11%라는 점은 한국농촌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래를 담당할 수 농촌의 인구비율이 불과 11%라 할지라도 이 수치라도 유지시키고 한걸음 더 나아가 증대시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고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청장년층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거나 도시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도시보다 낙후된 교육, 보건, 문화 시설이 이농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도시민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단지화를 통한 지역 내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은 청장년층의 농촌유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단지화는 행정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IT능력을 겸비하고 전국각지를 누빌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또한 단지화를 통한 농촌관광 사업은 그것의 행정업무와 가이드업무 등을 맡을 수 있는 젊은 인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젊은 인력의 유인책과 함께 확실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매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율로 인하여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농촌 고령화문제의 차선책은 이미 고령의 인구로 구성된 농촌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효율인 노동력 사용을 위해서는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화, 조직화를 통

한 공동노동력의 체계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공동의 노동력 이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동력을 사용하는 측과 제공하는 측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끌어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농업 경영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표본농가현황-연령별 가구원수

(단위 : 명)

	연령별	2004	2005	2006	2007
평 균	계	2.85	2.83	2.77	2.77
	20세 미만	0.39	0.37	0.34	0.33
	20 ~ 29세	0.17	0.17	0.14	0.15
	30 ~ 39세	0.16	0.15	0.14	0.15
	40 ~ 49세	0.36	0.33	0.29	0.28
	50 ~ 59세	0.49	0.5	0.48	0.48
	60세 이상	1.26	1.31	1.36	1.38
전 업	계	2.51	2.49	2.44	2.41
	20세 미만	0.26	0.24	0.22	0.19
	20 ~ 29세	0.07	0.07	0.05	0.05
	30 ~ 39세	0.08	0.08	0.06	0.06
	40 ~ 49세	0.27	0.23	0.19	0.16
	50 ~ 59세	0.4	0.4	0.38	0.38
	60세 이상	1.44	1.48	1.55	1.56

통계청

3) 조직 경영체 문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화 된 전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여전히 영세소농구조이다. 영세소농들은 시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출하단계에서의 규모화 된 경쟁력 있는 산지유통조직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산지유통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효율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만 한다. 가족농 체제에서는 새로운 인력이 영농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업생산기반이 필요로 하고 그만큼 투자되는 금액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신규 후계인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

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이 조직화되어 조직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농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도 농촌의 조직 경영체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고령화 인구는 농촌에서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삶을 사는 지혜는 청장년층보다 높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나 작목 개발에 대한 참여가 어렵고, 보수적인 성향과 노동력의 한계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자본의 투자 또한 어렵기 때문에 조직적인 경영체를 만드는 데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 경영체의 문제는 소비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화, 조직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조직 경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4) 마케팅⁵⁾ 역량 부족

소비자의 식품선호패턴이 변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대형할인마트의 출현으로 농산물의 경우에도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농업법인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 시장의 개방화 추세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들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농산물을 타회사와 차별화시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농가에서는 공동마케팅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농업법인만큼의 힘과 조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직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단지화 조직화를 통해 유통시설 공동이용 및 공동마케팅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농외소득의 문제

도시에서의 각박한 삶으로 인해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주말마다 농장을 찾아서 직접 체험을 하고, 관광을 하는 도시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에 빠르게 대응하는 농가단지도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대부분의 지역은 개별농가 구조로 이러한 방법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못하다. 단지화, 조직화를 통해 농업단지를 세워 운영한다면 이러한 농외소득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가 있다. 단지화, 조직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이러한 농업의 에너지화 시설 및 자원의 흐름을 농외소득을 위한 사업전략에 이용한다면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할 수 있고 이것은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끌어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되어 농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5) 경영학에서 지칭하는 마케팅의 고전적 개념은 주로 4P(Product: 제품 또는 서비스, Price: 가격, Place: 유통, Promotion: 판매촉진) Mix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케팅의 개념도 위의 내용이라 하겠다.

3. 미래농업의 구조적 구축 방안

앞서 언급한 구조적 문제점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단지화와 조직화가 꼭 필요하다.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한 구조적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소득의 보장이자다. 기계화, 기업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규모화된 생산과 공동시설을 통해 물류비용과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공동브랜드 개발 및 다양한 공동관측 등의 공동마케팅을 통한 소비증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노동력의 공동이용이다. 생산비를 감소시켜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첫 번째 필요성과 겹치는 부분일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소득의 증가가 초점이 아니라 부족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즉, 일정한 단지 내에서 조직적으로 공동의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농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단지화와 조직화를 위해서는 조합법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비록 그 수가 적겠지만 이는 청년층의 이농현상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단지화를 통한 개별농가의 소득증대는 청년을 농업생산현장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는데 손색이 없다.

넷째,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소비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단지화와 조직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은 이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고 단지화, 조직화가 각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매우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농외소득의 증대를 통한 효과이다. 단지화와 조직화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촌관광과 생태체험 등의 농외소득 사업을 한다면 농민에게는 경제적인 이득을 도시민에게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의 길을 걷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Ⅲ. 단지화, 조직화모델 사례분석

1. 나투어 영농조합법인(케비스랜드)⁶⁾

1) 단지화를 통한 소득의 보장

나투어 영농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유통기업인 케비스랜드가 농가와 장기임대차 계약을

6) 이 법인의 농장경영과 관련한 사업은 폐업한 상태임. 법인의 입장에서 초기 자기자본이 미약했던 부분과 농장경영이외의 과도한 사업다양화가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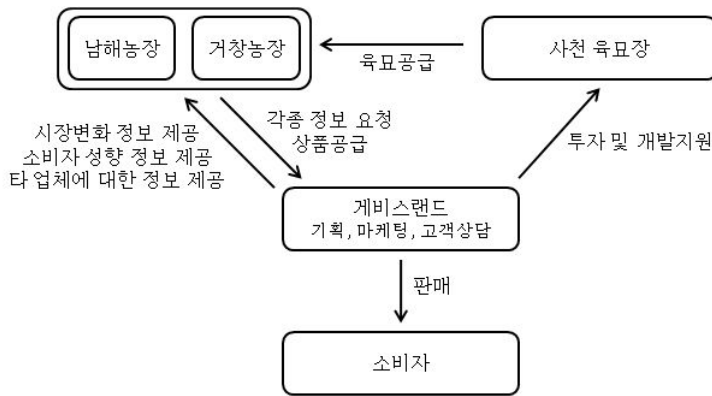
통해 마을을 단지화한 사례라는 것이다. 나투어 영농조합은 거창과 남해에 각각 40ha(12만 평) 경지를 보유하고 있고 73호, 98호의 농가가 있다. 이들 농가는 케비스랜드에 농지를 임차해주고, 케비스랜드로부터 매년 임차료를 받고 있다. 임대차 계약은 생산의 안정을 위해 15년 장기로 하고, 5년마다 임차료를 재결정하고 있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자신들이 빌려준 논, 밭에서 일을 함으로써 노동력 제공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다. 농민들에게는 매년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농가를 경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장기임대차 계약을 통한 단지화 사례로 이와 같은 형태로 단지화를 한다면 개별농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산량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임차료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단지화 조성에 있어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2) 노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 모색

기계화가 보편화되고 있고 기술이 발달했지만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 부문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경우 관행농업보다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고령화와 고임금 구조로 인하여 노동력 문제는 농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 고령화와 작업인력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식재나 수확, 관리 부분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케비스랜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검토 중에 있다. 지역 내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추가 노동력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공간의 보장이 필요하고, 외국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임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고임금으로 인해 외국인 대체 활용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방법은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외부자본 유입을 통한 조직적 경영체 구조 완성

나투어 영농조합법인에게 있어서 케비스랜드는 외부자본투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농민들은 타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초기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 그만큼 참여 동기를 유발시켰다. 또한, 농지의 장기임대차 계약 및 노동력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의 창출을 이뤄 내었다. 현재 농가에는 대규모 자본을 모을만한 힘이 다소 부족하다. 공동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물류, 유통, 판매 등을 위해서는 꽤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나투어 영농조합의 사례는 과거의 영농조합과는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지화, 조직화의 사례는 현재까지의 농업의 구조적 형태를 보았을 때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림 1> 게비스랜드의 조직구조 형태

앞의 <그림 1>은 게비스랜드의 거시적인 조직의 형태이다. 게비스랜드는 나투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나투어 영농조합법인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그림 1>에 나타난 남해와 거창농장, 사천육묘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게비스랜드는 나투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를 맡고 있다. 나투어 영농조합이 설립되기까지 게비스랜드라는 외부자본의 유입이 있었고, 그것은 생산과 판매의 원활한 흐름을 가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현재 나투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부문의 농장경영은 폐업상태다. 지금까지 본 외부자본금 유입의 장점과 달리 조합의 과잉 자본차입에 따른 압박으로 완성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없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만 해결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미래형 농업농촌 발전모델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생산 판매 분리를 통한 조직적 마케팅

농업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개별농가들은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마케팅에 대한 무지함과 조직적인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개별농가들이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 행하고 있는 것이 공동마케팅이다. 생산은 각자 맡고, 판매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각 개별농가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게비스랜드의 경우 이러한 점을 개별생산에서 공동 단지화 생산을 통해 극복하였다. 나투어 영농조합은 생산만을 담당하고 판매는 게비스랜드가 담당함으로써 생산과 판매를 분리시켜 각각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게비스랜드는 농업기술과 마케팅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게비스랜드는 농가에게 다양한 형태로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농가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게비스랜드라는 외부조직으로 인해 영농조합의 주체가 농민인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산청군)

1) 대규모 단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산청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외 5개 읍, 면에서 총경지면적 2,200ha(660만평)의 거대한 규모로 15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조성된 농업단지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주도로 단지가 조성되었고, 경축연계를 통한 자원순환형농업⁷⁾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단지는 1,754가구(경종 1,500가구, 축산 25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농지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공동관리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이루고 있고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지역별 단지화, 규모화를 통한 노동력 문제 극복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영세농으로 인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었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청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단지화, 규모화를 통해 농업경영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추구하였다.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농현상은 전지구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노동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은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화, 규모화가 필요하다.

3) 세분화된 조직체계

산청군은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지원과를 두고 있다. 친환경 농축산과는 다시 농정, 친환경농업, 유통, 친환경축산, 가축위생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이 중 친환경농업과와 친환경축산과가 주축이 되어 산청군의 광역친환경농업사업을 맡고 있다. 산청군의 광역친환경농업의 조직체계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기획, 마케팅, 직영사업팀, 사업관리팀으로 구분된다. 이들 각각은 조직 내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하면서 상호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규모가 작다면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체계를 잡기가 더욱 힘들다. 그러므로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조직을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는 단지화, 규모화를 통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7) 자원순환형 농업(resource cycling agriculture)은 농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또는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환경용량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폐기물을 농업계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농업생태계에서 물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농축산물의 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즉, 자원순환형 농업은 작물·가축의 생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방식이라 할 수 있다.(김창길, 2003,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및 환경부하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 산청군 광역친환경농업 조직체계

4) 소비자 신뢰 마케팅 전략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는 소비자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신뢰도를 한번 잃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제품의 품질적 측면, 광고 홍보를 통한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산청군에서는 체험행사를 판촉 전략으로 삼고 있다. 단오제, 친환경체험, 메뚜기잡기 등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산청군친환경농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농가에서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농조합에서도 조직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관심을 가지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마케팅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IV. 한국형 친환경농업 최적모델 도출

1. 사례결과 통합 벤치마킹

한국의 농업, 농촌의 단지화, 조직화는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선 2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선 두 가지 사례와 관행농업을 비교,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5〉 관행농업과 우수사례 비교

구 분	관행농업	우수사례	미래 발전모델
노동력	개인	집단, 노동력 임대	집단 참여 및 임대 융합
농지소유	개인	개인, 농지 임대	개인, 임대 융합
지역리더	부재	존재	기업화리더 및 지역리더 양성
자 본	부재	민간자본 참여 및 정부보조	민간자본 참여 및 정부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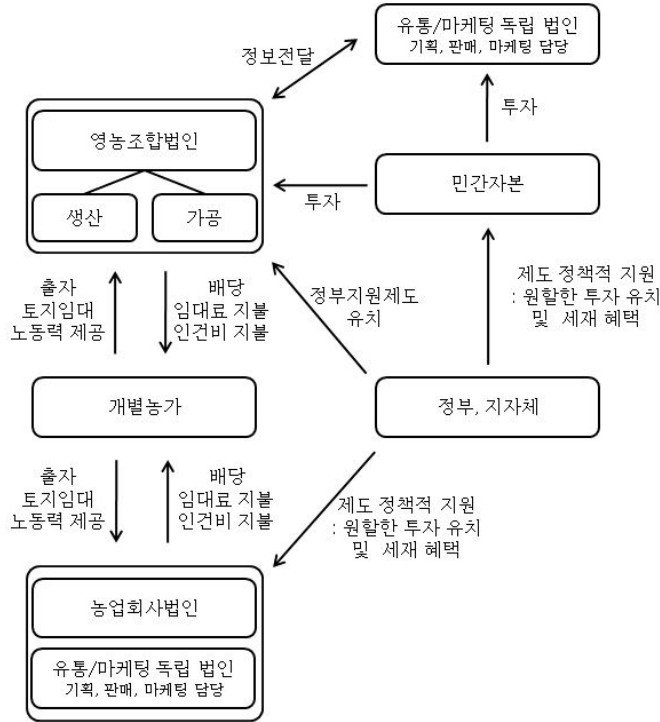
구 분	관행농업	우수사례	미래 발전모델
농외소득	부재, 개별존재	농촌관광 및 생태체험 사업	농촌관광 및 생태체험 사업
유통시설	개인, 공동판매	공동 유통시설 존재	공동 유통시설 존재
마 케 팅	부재	공동 브랜드, 조직적 운영	공동 브랜드, 조직적 운영

나투어 영농조합법인은 게비스랜드라는 기업이 참여한 형태의 영농조합법인이고, 산청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국가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영농조합법인이 생겨나고 있지만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영농조합법인의 대부분은 생산은 개별적으로 하면서 판매부문에서 규모화하는 조직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역 단위의 농업의 조직화가 아니라는 면에서 앞서 설명했던 두 개의 영농조합과 차이를 지닌다. 또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지도자가 부족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게비스랜드와 산청군도 하나의 리더라고 보았을 때, 단지화와 조직화에 있어서 핵심리더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게비스랜드라는 유통기업이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영농조합법인의 형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극히 드문 일이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자원순환형태의 농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기 힘들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게비스랜드의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방법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한 단지화, 조직화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비현실적이다. 일반회사가 리스크가 큰 농업에 쉽게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국가에서 모든 지역에 자본을 투입하여 단지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지화, 조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외부자본의 유입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투어영농조합과 산청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사업은 자본을 투입하는 주체에 있어 민간자본이나 정부자본이나하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외부에서 자본을 투입한다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자본을 투입하는 주체를 보기에 앞서 외부 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한국형 농업·농촌을 위한 최적모델 도출

앞서 말한 단지화, 조직화의 우수사례 도식화 하자면 아래 <그림 3>과 같은 형태의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단지화, 조직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의 도움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통해 도시 및 외부 자본 유입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모델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각 개별농가는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 토지임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배당금, 임차

료, 인건비를 받고, 법인은 생산과 판매를 분리 운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진다면 단지화, 조직화를 하는데 있어 최적의 여건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3〉 농업·농촌의 미래 발전모델

3. 모델 적용 제한 사항

단지화, 조직화를 위한 성공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 유능한 리더의 노력과 힘은 고스란히 법인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유능한 리더가 없다면 정부에서 농촌 리더 양성을 위해 교육을 통해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단지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지역 내의 농가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 매우 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개별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리더의 힘도 중요하겠지만, 소득보장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해준다면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더욱 용이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정부, 기업 등의 외부 지원과 적극적인 추진의지이다. 나투어 영농 조합과 산청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거창군, 남해군 및 산청군의 지원

과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있었다. 이러한 지원과 관련하여 앞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한 외부자본 유입문제를 꼽을 수 있다. 외부 특히 도시의 자본을 유입하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국가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단지화와 조직화를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했을 때 가능하다. 허울뿐인 영농조합법인은 점점 도태하게 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수사례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단지화, 조직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의 농촌,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는 소농구조로서 가지는 한계,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농가부채의 악순환, 전세계적인 농촌의 고령화, 경영조직체로서의 문제점 등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난해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화와 조직화를 통한 영농조합, 농업회사의 존재가 필요하다. 단지화와 조직화는 농민의 소득 보장과 농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공동이용,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농업경영의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례로써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케비스랜드와 산청군의 사례는 모두 우수한 사례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농촌의 단지화와 조직화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외부자본의 유입문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전국 각 지역마다 마을을 단지화, 조직화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변형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는 개별농가를 단지화, 조직화를 통해 법인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다. 그러나 농가, 정부, 기업 등의 개별주체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훌륭한 영농조합, 농업회사가 탄생할 것이다. 농가는 생산의 고품질화를 정부는 외부자본유입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기업은 도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논문접수일 : 2010. 12. 5. 논문수정일 : 2010. 12. 15. 최종논문접수일 : 2010. 12. 25]

참 고 문 헌

1. 김정호 외. 1997.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박문호 외. 2000.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김경덕. 2004.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증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정호 외. 2005. 지역농업의 현실과 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박진도. 2005. 지역농업 발전과 지역농정의 혁신.
6. 김영생 외. 2006.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유정규. 2007. 지역농업조직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과제.
8. 황의식 외. 2008. 농업경영의 조직화, 2008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